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KOFA)
2025년 하반기 회장단 회의 열렸다

MONTHLY **KOFA**

코파의

칭찬

Ruko Pinangsia Block B No.25, Tangerang, Jl. Boulevard Jend. Sudirman, RT.001/RW.009,
Panunggan Bar., Kec. Cibodas, Kota Tangerang, Banten 15138, Indonesia
Tel. 0856 9113 2325, 0821 1122 8827 E-mail : indokofa@gmail.com

Vol. **133**
2025/10



2026년
카렌다 제작
021 3002 9090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
탁상용 / 벽걸이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KOFA 제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미국 관세로 압박받는 인도네시아 신발 산업



인도네시아의 신발 제조업체들은 수출 전망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있으나, 지정학적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업계 단체들은 지역 및 국내 시장에서의 이중 압력과 더불어, 중국산 저가 제품의 잠재적 유입 가능성에 직면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관세의 영향

최근 미국과의 무역 협정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수출업자들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자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산 신발의 가장 큰 수입국인 미국으로 선적되는 상품에 대해 19%의 수입 관세를 부과받게 되었다. 이 새로운 관세가 발효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후, 인도네시아 수출업자와 미국 수입업자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인도네시아 신발협회(Aprisindo)의 요세프 빌리 도시워드 전무이사는 지난 8월 21일 “19% 관세로 인해 비용 부담 협정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구매자들이 보통 전체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인도네시아 생산자들과 부담을 나누는 다양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세프 전무는 처음에 32%

까지 위협받았던 미국 관세가 19%로 낮아진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베트남 제조업체에 부과되는 20% 관세와 같은 지역 경쟁국들과 비교했을 때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구매자들이 저렴한 대안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업계는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전망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쟁력 저하 요인과 정부 지원 필요성

인도네시아 신발 산업은 비용 경쟁력 문제로 인해 여러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인도네시아고용주 협회(Apindo)의 경제 정책 분석가인 아집 함다니(Ajib Hamdani)는 높은 생산 비용인 “고비용 경제(high-cost economy)”가 인도네시아 신발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Apindo는 정부가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 금리를 낮추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추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중국 무역 전쟁의 여파로 중국산 저가 상품이 인도네시아로 유입되어 국내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내 시장을 겨냥하는 업체들은 중국산 수입품과의 경쟁으로 인해 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신발기업인협회

(Hipan)의 다비드 찰릭 회장은 정부가 강력한 보호 조치와 “더 공정한” 무역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 신발 판매는 지난 한 해 동안 부진했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장 모두 수요가 정체된 상태이다. 다비드 회장은 정부가 정책적 지원, 현대식 기계 구입 비용 지원, 그리고 신용 접근성 개선을 통해 국내 브랜드들을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 현황 및 통계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인도네시아의 가죽 및 신발 산업은 전년 대비 7.62% 성장했다. 지난 10년간 미국은 여전히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이었으며, 그 뒤를 유럽, 중국, 일본이 이었다. 히판의 다비드 찰릭 회장은 나이키, 푸마, 아디다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이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대부분의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가 인도네시아 수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그는 관세율이 약간 낮아졌다고 해서 베트남이나 중국과 같은 경쟁국에 비해 장기적인 우위를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 2025년 하반기 회장단 회의 열려



지난 19일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회장:이종윤)는 2025년 하반기 회장단회의를 팅그랑소재 가딩라야에서 열었다.

이날 하반기 회장단회의에 KOFA 송창근 명예회장을 비롯해 고문, 부회장, 운영이사 등 많은분들이 참석해 2025년 재인도네시아 한국신발인의날 행사에 관한 현안논의와 현재 어려움을 겪고있는 우리 신발기업의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 이종윤회장은 재임기간중 가장 어려웠던 2년6개월의 코로나 기간을 회원사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

조로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고 작금의 어려움 또한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송창근 명예회장과 곽국민고문은 여기 모인 회장단에게 KOFA의 발전을 함께 기원해주어 감사함을 표했다.

재인도네시아 한국 신발협의회는 매년 각 봉사단체에 정기적인 후원을 해오고 회원사의 권익을 위해 각 행사에 참석해 다양한 정보를 네트워킹하고 있다. 오는 11월 14일 열리는 범 한국 신발인의 날 행사는 KOFA의 가장 큰 행사이다.

코파의 힘 광고를 제안합니다.

코파의 힘은 귀사의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특 징

코파의 힘은 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회의 전문지로서 탄탄한 디자인파워를 바탕으로 귀사의 홍보를 지면을 통해 대행해 드리며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함께하는 매체로 다가갈 것입니다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3002 9091 (mr. kang) 0821 1122 8827
khong3000@gmail.com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www.hanjinpower.com

Jl. Raya Serang - Jakarta KM. 80, Kel. Kaserangan, Kec. Ciruas -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www.hanjinpower.com

캐나다, 인도네시아와 무역 2배 확대 목표...대미 의존도 완화 추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으로 95% 상품 면세 수출 기대
소형 모듈원자로 · 농업 ·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확대 계획



▲2025년 7월 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탄중 프리옥 항구에 있는 컨테이너. 사진=로이터

캐나다가 미국 외 무역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와의 무역을 6년 내 2배로 늘리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했다. 마니터 시두 캐나다 국제무역부 장관은 24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8~12개월 동안 인도네시아 수출의 최대 95%에 대해 면세 접근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체결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것으로, 마크 카니 총리가 미국에서 캐나다의 수출을 다각화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은 후 경제적으로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캐나다가 처음 체결한 무역협정이라고 25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시두 장관은 “농업, 에너지, 통신, 국방, 항공우주 분야에서 많은 기회를 보고 있다”며 인도네시아가 상대적으로 컴팩트한 원자로의 새로운 등급인 캐나다의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진지하게 검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두 장관은 양자협정이 1년 또는 그 이전에 각 정부에 의해 비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캐나다와 인도네시아

의 양자 무역이 6년 내에 2배로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캐나다 상품의 작은 시장으로 상위 10개 무역 파트너에 속하지 않는다. 2024년 양국간 양자 무역 총액은 50억 캐나다 달러(36억 달러)를 조금 넘었는데, 이는 양자 무역이 1조 캐나다 달러를 넘어선 캐나다 최대 무역 파트너인 미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캐나다의 가장 큰 수출 시장으로, 캐나다가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가는 관문을 제공한다고 시두 장관은 설명했다. 캐나다는 동남아시아 진출 활동의 일환으로 필리핀과도 조만간 협상을 체

결할 예정이다.

시두 장관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지역을 자주 방문해 가시성을 확보하고 상대방들과 대화를 나눌 것”이라며 아시아에서 주목하고 있는 다른 국가로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을 언급했다.

한편 캐나다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시두 장관은 양국의 일부 핵심 부문에 피해를 입힌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화 증가의 일환으로 11월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관세 공세를 퍼부은 이후 캐나다의 두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카니 총리는 9월 23일 리창 중국 총리와 “건설적인” 무역 회담을 가졌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

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두 장관은 “우리는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과거에는 그런 종류의 참여가 없었다. 모든 수준에서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또한 더 넓은 경제 관계에 대해 인도와도 협력하기를 열망하고 있지만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시두 장관은 덧붙였다.

이러한 캐나다의 무역 다각화 노력은 미국의 보호주의의 정책 강화에 따른 위험 분산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 확대는 경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현대캐피탈, 인도네시아 법인 출범... “시장 공략 본격화” 디지털 플랫폼 · 차별화 상품으로 현지 공략



현대캐피탈이 인도네시아 법인을 공식 출범하며 해외 사업 확장에 나선다. 다양한 금융상품과 디지털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대캐피탈은 인도네시아 법인 ‘현대캐피탈 인도네시아’가 현지 현대자동차 고객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자동차 금융 영업을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캐피탈 인도네시아는 현대캐피탈이 인도네시아 대표 기업 ‘시나르마스’ 그룹과 ‘신한은행 인도네시아’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다. ‘현대 파이낸스’ 브랜드로 현

대자동차 구매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유예형 할부’와 ‘거치형 할부’ 등 새로운 금융상품을 도입해 현지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며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캐피탈 인도네시아는 모든 현대자동차 딜러샵에 금융 전문상담사(CMO)를 배치해 고객에게 1:1 상담 서비스와 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 고객이 딜러샵 방문 없이도 자

동차 견적 확인부터 금융 신청까지 온라인으로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고객 다이렉트’ 서비스를 통해 고객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현지 딜러에게는 차량 조회와 금융 견적 산출, 심사 신청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디지털 자동승인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 효율과 처리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정형진 현대캐피탈 사장은 “현대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

는 인도네시아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파트너사들과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TN뉴스]

2025년
카렌다 제작
021 3002 9090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
탁상용 / 벽걸이등



PT AIJUM GREEN NUSA

정직하고 품질 좋은 제품으로 인정받겠습니다!

— **LS-AG Cable Indonesia** 공식 대리점 —



LV 케이블/Building 케이블



산업용 케이블



Overhead 케이블



Busduct



HEAD OFFICE
Ruko Dalton Extension DLNT 052-053
Jl.Scientia Boulevard, Gading Serpong,
Curug Sangereng, Kelapa Du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810
Tel: 0811 8126 7788 (한국인 상담)
0811 8430 561 (한국인 상담)



www.lscns.com
www.ltag.co.id

Karawang 공장
Artha Industrial Hill
Blok E Kav 20-21, Wanajaya,
Telukjambe Barat, Karawang
Jawa Barat 41361, Indonesia
Tel: 021 3973 3988

OFFICIAL DISTRIBUTOR | 공식 대리점
PT AIJUM GREEN NUSA



젊음 ... 그들은 한인동포의 미래다. 땅그랑반튼한인회 주최 제1회 청년골프대회 푸른 미래를 열었다.

지난 13일 땅그랑반튼한인회(회장:박성대)에서 주최하고 땅그랑반튼한인회 청년분과위(위원장:신지훈, 유성열)에서 주관한 제1회 땅그랑반튼 청년 골프대회가 땅그랑소재 꼬따톤에서 50여 한인 청년들이 모여 뜨거운 골프대회를 열었다.

“청년은 우리 한인동포의 미래”라는 당연함을 푸른 한인동포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자의적인 모임을 만들어 비로소 그 첫발을 디뎠다.

땅그랑반튼한인회 조직도에는 수 년전부터 청년분과위를 두었지만 실제 청년분과 자의적인 행사나 비전을 만들어 실행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금번 비로소 그 첫 발을 내딛었다.

어렵사리 첫 행사를 성공적으로

열어 진행하게 된데는 신지훈, 유성열청년분과 위원장을 비롯해 김어진청년분과위원, 박경민, 윤제웅대외협력 분과위원, 양덕진사회봉사 분과위원장, 최영철사회봉사 분과위원, 최성미 여성분과 위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청년의 힘을 만들어 나가자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날 2부 만찬행사는 땅그랑 피낭시아에 위치한 이지트에서 열렸다.

신지훈 청년분과위원장은 이 자

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은 땅그랑을 사랑하는 젊음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며 기존 땅그랑 커뮤니티는 선배들의 열정으로 잘 이끌어왔다 이제부터 우리 청년들의 능동적인 활동으로 더 나은 한인 커뮤니티를 만

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유성열 청년분과위원장 또한 우리 청년이 땅그랑반튼을 넘어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큰 외침을 전했다.

한편 이날 한인회 홍종서 수석

과의 사업계획으로는 향후 청년동포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네트워킹, 한인회 소속 업체와의 연계강화, 지역사회내 교민 단합 및 정체성 강화에 주력하며 동포 3세대를 위한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을 수 있는 뿌리정신의 함양에 그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처음 열린 행사를 정례화 시켜 연 2회 정기행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으며 한



부회장은 1991년 젊은 나이에 인도네시아에 왔는데 어느새 기성세대가 되었다 이 자리의 젊은 후배들의 힘찬 기운을 느끼게 되어 감사함을 전했고 한인동포 커뮤니티가 더욱 더 발전되고 확장 될 기회와 비전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으며 한인동포 상호간 네트워킹을 통한 자기 발전과 협업으로 더 큰 걸음을 디딜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2부 행사 말미에 발표한 청년분

인동포사회의 주요행사로 발전시켜 참가자를 확대하고 청년가족, 한인회 등록 업체간 협력의 네트워킹을 구축하겠다고 했고 한인사회와 현지 주민과의 건강한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땅그랑반튼한인회 청년분과위는 선배의 지혜를 딛고 청년의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힘찬 함성으로 행사를 마쳤다.

[땅그랑반튼한인회 사무국]



PT. ACE ENERGY SERVICE
Electical - Mechanical - IUJPTL (Solar Plant) - O&M

- ACE와 함께 2025년 귀사의 친환경 선도기업 이미지를 만드십시오.
- 태양광 사업 제안에서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도네시아 태양광 선두주자!

인도네시아에 청정에너지를 담습니다!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PLN보다 저렴한 태양광 사용전력 비용만 납부하세요.

- 설치비 X, PLN전기로 보다 저렴한 태양광 전기료 납부
- 운영비 X, ACE와 글로벌 투자사가 20-25년 보증 운영
-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선도기업 이미지 제고

ACE ENERGY SERVICE는 On-Grid / Off-Grid 태양광 Total PV 시스템을 제공 미래 태양광에너지 발전을 선도하는 EPC/O&M 회사입니다.

연락처 : Mr. Steve Youn : 0812 9730 5553 / steveyoun.indo@gmail.com
Mr. Song Kwang Ho : 0812 8168 3844 / dragonhoya@gmail.com



<PT. Hwa Seung Indonesia_Jepara_4.1MWp>

<PT. Parkland World 3_Jepara_2.4MWp>



<PT. Handal Sukses Karya_Jepara_1.1MWp>

<세아 상역 인도네시아_2MWp>

※ PT. Shinsung Grand Indonesia, PT. Kanindo makmur jaya, PT. Pung Kook Indonesia One 외 다수

인도네시아 재무장관 교체 후, 재정 건전성 관측을까



▲자카르타 수디르만 상업지구(SCBD) 야경(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신임 재무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대신 재정 규율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장은 스리 물라니의 후임 장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2일 전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 레이팅스(Moody's Ratings)는 지난 8일 내각 개편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에서 벗어날 경우 인도네시아의 신용 전망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향후 인도네시아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무디스의 수석 부사장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Christian de Guzman)은 지난 10일 성명에서,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 내 변화가 오랜 재정 정책 신중성에서 벗어난 변화라면,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정책 불확실성은 자본 유출을 초래하고 루피아화와 국제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자본 흐름과 환율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과제인 안정성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도

말했다. 지난 3월 무디스는 2018년 4월부터 유지되고 있는 안정적인 전망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국가 부채 등급을 "Baa2"로 재확인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경고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지난 9월 8일 내각 개편한 지 이틀 만에 나온다. 이번 내각 개편에서 스리 물라니 인드라와피 재무장관이 예금보험공사(LPS) 사장을 역임했던 경제학자 뿌르바야 유디 사데와로 교체됐다. 스리 물라니 전 장관은 10년 이상 재임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복지 지출 증가와 세입 개혁 지연에도 불구하고 예산 적자를 목표 범위 내로 유지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DB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라디카 라오는 시장의 즉각적인 관심은 신임 재무장관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역량보다는 재정 건전화 조치에 대한 의지에 더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한편, 라디카는 사회복지 지출 증가, 세수 부진, 2월에 막 출범한 국부펀드 다난따라의

추가 예산 요구로 인해 채권 시장이 "재정 악화 위험"을 경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디카는 최근 부담 부담 계획과 유사하게 보다 공격적인 완화 주기를 채택하고 재정-통화 정책 조정 사례를 늘려야 한다는 압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5년 상반기에 정부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한 반면, 정부 수입은 8.4% 감소했다. 이러한 부진한 실적은 뿌르바야의 당면 과제가 지출을 가속화하는 것임을 시사하는데, 이는 정부가 2026년 예산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법정 상한선인 3%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지 능력을 시험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정부는 또한 올해 약 1,300조 루피아(미화 793억 달러)의 부채 원리금 상환이 예정되어 있어 상당한 재융자 부담에 직면해 있다. 2026년 예산안 초안이 통과되기 몇 주 전에 취임한 신임 재무장관은 내년 예산에 큰 변화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대신 정부 재정법에 따라 재정 규율을 유지하고 예산 적자를 3% 상한선 이하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뿌르바야는 "기존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않은 것 같다"며 새로운 경제 부양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전략의 일환으로 그는 정부가 현재 중앙은행에 예치된 425조 루피아 중 200조 루피아를 국영 은행으로 옮겨 "은행 유동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U, 인도네시아와 무역 협정 체결... "거의 모든 상품, 무관세"

협상 10년 만에...공급망 다각화 의도 인도네시아, 동남아 최대 경제국 96% 상품, 5년 내 관세 '0' 으로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인도네시아가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포괄적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10여 년 이어진 협상 끝에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합의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이다. 이번 협정은 10여 년에 걸친 협상 끝에 체결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정책에 맞서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 경제안보 집행위원은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로 베트남, 필리핀, 태국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교역 규모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며 "지금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장을 열고있다"고 말했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이날 인도네시아에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할 예정

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전체 교역 상품의 약 96%에 대해 향후 5년 이내에 관세가 0%로 낮아진다. EU산 자동차에 부과되던 50% 관세는 5년 이내에 사라지고, 기계나 가전제품 등에 적용되던 30% 관세도 단시간 내에 0%로 인하될 전망이다. 아울러 인허가 등 각종 수출 규제가 철폐되고 농산물과 식품류 역시 무역협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EU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은 최소 30%, 약 30억유로(약4조9360억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다만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그리고 인도네시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이번 협정으로 유럽 수출업체들이 약 6억유로(약 9900억원)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아시아경제

엘리베이터(화물용) 선택은 오케이가 최선입니다.

오케이엘리베이터

세계 어디든 함께합니다.

글로벌 엘리베이터 기업들과 쌓은 신뢰와 기술

오케이 엘리베이터(주)

OK VINA ELEVATOR CO.,LTD.
OK ELEVATOR CO.,LTD.
PT. OKE ELEVATOR INDONESIA

화물용엘리베이터
FREIGHT ELEVATOR

승객용엘리베이터
PASSENGER ELEVATOR

식당용엘리베이터
DUMB WAITER

운반하역기계
DOCK LEVELER

INDONESIA | 이윤환
T. +62 21-8991-9999 F. +62 21-3873-5031
M. +62 852-1778-9098
E. okelevatorind@gmail.com

KOREA | 이윤환
M. +82 10-5313-8820 E. okelevator@naver.com

PT. OKE ELEVATOR INDONESIA
Ruko plaza menteng blok c no16 lippo cikarang bekasi 17550

모든걸 저희 OK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인도네시아-유럽연합 무역 협정에 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쁘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왼쪽)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오른쪽)이 2025년 7월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인도네시아-EU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U-CEPA)의 '정치적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비서실 홍보국/Laily Rachev)

인도네시아와 유럽연합(EU)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거의 10년간의 협상 끝에 9월 23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 협정으로 인도네시아와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경제적 유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싱가포르와 베트남에 이어 유럽연합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체결한 세 번째 무역 협정이다.

2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유럽연합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IU-CEPA)에 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트럼프, '긴급' 촉구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유럽 연합과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처음에는 무역 협정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팜유와 산림전용 같은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면적인 관세 정책으로 인해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긴급성'이 생겼다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데니 뿌리아완 연구원은 말했다.

7월에 뿌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브뤼셀을 방문하여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19차례의 협상 끝에 양측이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경제조정부 아이르랑가 하르타르도 장관은 주요 국가들 간의 "관세 전쟁과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양측이 "안정적인 양자 협정을 통해 확실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번 합의가 글로벌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위험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 인하

아이르랑가는 지난 6월, 이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네시아의 유럽 연합 수출품 중 약 80%가 관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팜유, 신발, 섬유, 수산업 등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품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폰데어 라이엔은 지난 7월, 이 협정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청정 및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중요한 원자재 공급망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안전한 공급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공급도 원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환경에

대한 존중, 지역 사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좋은 일자리와 지역 가치 창출에 대한 명확한 초점을 의미한다.

혜택

유럽연합은 인도네시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 작년에 양국 간 무역이 301억 달러에 달했다.

데니 연구원은 이번 협의로 약 2억 8천만 명의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유럽연합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하며, 시장 규모와 성장하는 경제를 강조했다.

아이르랑가는 이 거래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유럽연합 기업이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정책 긴장

인도네시아는 주요 팜유 수출국으로, 산림 벌채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의 수입 금지 제안 등의 문제로 관계가 틀어졌다. 유럽연합의 산림전용 규제에 따라, 2020년 12월 이후 삼림 벌채가 이루어진 토지에서 생산된 대두, 목재, 팜유, 소, 인쇄용지, 고무 등 다양한 상품의 수출이 금지됐다.

아이르랑가는 유럽연합 무역 책임자 마로스 세프코비치가 유럽 연합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 산림전용 규제 관련하여 "특별 대우"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결국 이 규제의 시행을 올해 말로 연기했다. 활동가들은 이번 합의가 인도네시아 팜유 수요 증가로 인한 산림벌채가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린피스 인도네시아의 샤를 피드라는 팜유 보호구역에 남아 있는 자연림은 가까운 미래에 개간되어 농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브뤼셀은 산림전용에 관한 조항을 협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음 단계

아이르랑가에 따르면, 협정 서명 후 양측은 법적 검토와 공식 문

서 번역을 포함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이 합의는 2027년까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계약은 유럽연합 회원국, 유럽 의회 및 하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푸르바야노믹스'의 등장... 인니 재정 철학의 전환



인도네시아가 신임 재무장관인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를 맞이하면서 재정 정책의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는 전임 장관 스리 몰야니 인드라와티가 추구했던 긴축과 보수적 관리에서 성장 중심의 적극적 유동성 활용으로 재정 철학이 전환되었음을 상징한다.

푸르바야 장관은 취임 첫 청문회부터 경기 둔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누적 잉여 재정자금(SAL, Saldo Anggaran Lebih) 200조 루피아(약 12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유동성을 은행 시스템에 주입하는 파격적인 계획을 제안했다. 이 계획은 현재의 성장을 촉진하는 대신 미래의 운신 폭을 좁힐 수 있다는 근본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다.

수년간 예산 집행 잔액인 SAL은 누적되어 중앙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유휴 현금에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전임 장관 시절에는 이 SAL이 글로벌 변동성이나 재정 충격에 대비한 '비상 자금(rainy-day fund)'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 자금을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부양책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200조 루피아를 은행에 투입하면 화폐 유통 속도에 따라 약 500조 루피아의 유동성(GDP의 약 2%)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자금이 단순

히 은행에 머물지 않고 신용 및 회사채로 흘러가 실물 경제로 직접 유입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푸르바야 장관은 재정 한도(적자 3%, 부채 60%) 규칙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재정 한도 자체보다는 정부가 채무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더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SAL을 활용한 부양책이 당장 경제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인도네시아가 미래에 운신할 여지를 좁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무료 급식 프로그램 같은 장기적인 재정 압박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스리 몰야니 전 장관이 약 500조 루피아를 저축한 결정은 선견지명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푸르바야 장관은 유동성 주입만으로는 성장을 지속할 수 없으며, 물류 병목 현상, 규제 복잡성, 약한 법적 확실성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틈스목금형(틈스발형) 아크릴 커팅, 밴딩가공

- 생산성 향상
- 짧은제작기간
- 정밀성
- 품질 향상
-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뼈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틈스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틈스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 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1987busan@naver.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틈스금형, 특수 칼금형

흔들리는 인도네시아 환율, 경제 안정 위협하나

인도네시아 루피아 환율이 투자자들의 우려와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이라는 이중 압력에 직면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의 주요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다. 루피아는 2025년 들어 3% 하락하며 아시아에서 최악의 성과를 기록했다. 지난 4월에는 미국 달러 대비 16,970루피아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최근에는 16,585루피아 선에서 거래되었다. 올해 약세를 보인 달러에 대해 가치를 높이지 못한 아시아의 몇 안 되는 통화 중 하나였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수입과 외국 자본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루피아 환율이 주요 압박 지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중앙은행이 예상치 못한 금리 인하를 단행하자,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루피아 매도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시장은 정치적 압력이 중앙은행이 통화 안정성을 희생하고 성장에 더 무게를 두게 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를 다시 시작해 단기적으로 달러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거시경제적 안정성(낮고 안정적인 재정 적자, 정

부 부채, 경상수지 적자, 인플레이션)이 인도네시아를 강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여러 도시에서 발생한 시위와 신뢰도가 높은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의 갑작스러운 해임 이후 인도네시아 자산에 대해 점점 더 불안해졌다. 한 자산운영관리자는 인도네시아 채권에는 긍정적이지만 루피아에 대해서는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이 당분간 회복되지 않을 것이며,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도서출판/인쇄
광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21-3002-9087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합변의 법률상식

ESG 경영과 인도네시아 법률의 접점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은 글로벌 기업들의 필수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도 ESG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회사(PT PMA)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법적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의 ESG 관련 법률 제도와 이를 기업 전략에 통합하는 방안을 설명합니다.

1. 인도네시아의 ESG 관련 주요 법률 체계

- ① 환경(Environment) 분야
 - 환경영향평가법(AMDAL): 제조업, 대규모 시설 운영 기업은 사업 착수 전 AMDAL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폐기물 처리법 및 배출 허용 기준 규제: 위반 시 사업 중단 또는 형사처벌 가능
 - 에너지효율법: 특정 산업에 대해 에너지 절약 계획 제출 요구
- ② 사회(Social) 분야
 - 노동법(Law No. 13/2003): 공정한 근로계약, 최저임금, 퇴직금 기준 의무화
 - 지역 사회 기여 의무: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CSR 활동 보고서 제출 요구
- ③ 지배구조(Governance) 분야
 - 회사법(UU PT): 이사회 운영, 감사 기능, 주주총회 절차 명시
 - 내부 통제 제도 의무화: 대규모 기업의 경우 내부 감사 기능 강화 필요

2. ESG 요소를 경영 전략에 통합하는 방법

- ① 환경(E)
 - ESG 정책 수립: 배출량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설정
 - 친환경 공급망 구축: 협력업체 선정 시 환경 인증 조건 부여
 - ② 사회(S)
 - 다양성 및 포용정책 도입: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장애인 채용 장려
 - 지역 커뮤니티 연계 활동: 교육 후원, 인프라 기부 등 지역 기반 신뢰 확보
 - ③ 지배구조(G)
 - 내부 감사 및 리스크 위원회 설치: 정기 리스크 보고 체계 운영
 - 윤리경영 수립 및 준수교육 정례화: 부패방지법 위반 방지
- ### 3. 인도네시아 ESG 관련 평가 및 인센티브
- 정부 인증: 'PROPER' 등급 시스템을 통해 환경성과 우수 기업 선정
 - 국제 투자자 평가: 글로벌 ESG 평가기관(Sustainalytics, MSCI 등)의 기준을 반영한 기업 가치 평가 확대
 - 세제 혜택: 일부 환경 설비 투자 시 세액공제 또는 감면 가능
- ### 4. ESG 경영을 위한 실무적 대응 전략
- 법률 및 회계 자문을 통한 ESG 리스크 진단
 - ESG 보고서 발간: 연 1회 이상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권장
 - 이해관계자(정부, 투자자, 지역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변호사 함상욱

ESG는 단지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법적·재무적 성과로 연결되는 핵심 전략이다. 인도네시아의 법률 환경은 ESG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도 이에 발맞춰야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PT PMA로서 ESG 기반의 법률 대응은 곧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이다.

- 법무법인 HAMINDO/BAP LAW FIRM, ATMOS LAW FIRM 파트너 변호사
- 전문 분야: 기업 법무, 파산 관제, 건설 관련 법무, 광산 관련 법무, 형사 법무
- 한국 부경대학교 석사, 인도네시아 UNMA UNV. S2(석사)
- BAP 법무법인
- ATMOS LAW FIRM 파트너 변호사
- 인도네시아 변호사
- MEDIATOR (법원중재인 / MMI 민사법원)
- TAX LAWYER (세무변호사 / PEN-GADILAN PAJAK 세무법원)
- KURATOR (파산관재인 / KEMEN-KUM HAM 법무부)
- MINING LAWYER (광물변호사 / PERKHAPPI BNSP)
- 다국적 기업 M&A 법률 자문 (PT. Nestle Indonesia)
- 인도네시아 한인 업체 법률 자문
- 인도네시아 봉제협회 (KOGA) / 인도네시아 땅그랑 한인회 자문 변호사

‘나이키 혁명’ 이끈 아셈스 “日 도레이같은 회사로 변신”

장지상 대표, 사업 영토 확장 “고성능 운동화 접착제 개발 가능성 소재·완제품도 생산할 것”

‘나이키 혁명’ 이끈 아셈스 “日 도레이같은 회사로 변신” “유니클로 히트택의 숨은 주인공인 일본 도레이 같은 회사가 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장지상 아셈스 대표(사진)는 4일 부산 감천동 아셈스 본사에서 “원부자재 제조에 이어 완제품 생산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아셈스는 2003년 세계 최초로 이형지(붙임용 종이) 없이 붙일 수 있는 필름형 핫멜트 접착제를 개발해 20여 년간 글로벌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는 기업이다.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등 유명 글로벌 브랜드에 납품하고 있다. 기업 연구원 출신인 장 대표는 수백 번의 실패를 거쳐 무이형지 핫멜트 접착제 개발에 성공한 뒤 2003년 아셈스를 세웠다. 아셈스는 지난해 매출 572억원에 영업이익 92억원을 올리며 16%의 이익률을 기록했다. 2005년 국내 아웃도어 업체 트렉스타에 800만원어치 접착제를 공급한 지 20년 만의 일이다. ‘나이키 혁명’ 이끈 아셈스



“日 도레이같은 회사로 변신” 접착제는 실을 쓰는 재봉을 대체하며 생산 공정 혁신을 이끌었다. 장 대표는 “재봉에는 10년 경력 기술자가 필요하지만, 접착은 30분

교육으로 가능하다”며 “자동화를 전제로 한 의류·신발 산업의 미래는 결국 접착소재 기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아셈스는 탄탄한 접착제 매출

을 바탕으로 영역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00억원을 투자해 그물망 형태의 유연성 높은 접착제를 개발했다. 아디다스에서 나이키 ‘에어조던’을 따라잡기 위해 내놓은 ‘에드워드’ 시리즈 등 고성능 운동화에 본격 적용 중이다. 물 사용량을 90% 이상 줄이면서 섬유에 색을 입힌 무수염색사도 아셈스가 내세우는 신소재다. 아셈스는 2017년 세계 최초로 이 기술을 개발한 뒤 고도화 과정을 거쳐왔다. 이전 운동화 소재의 대세가 된 나이키의 ‘플라이니트’ 같은 경량 소재에 들어가는 친환경 섬유다. 장 대표는 “속옷부터 운동복, 일상복으로 확대 중인 봉제선 없는 심리스 패션에 필수 소재”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석유화학 기반이 아닌 식물 추출물로 만든 바이오 핫멜트 접착제, 수성 접착

제 대체 친환경 소재, 곰팡이 저항성 핫멜트 접착제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 단계를 밟고 있다. 장 대표는 “글로벌 패션 메이커들이 폐수 등 오염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소재 도입률을 높이고 있다”며 “올해를 기점으로 성과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히트택, 에어리즘, 퍼프테크 등 고성능 소재 개발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담당하며 유니클로의 성공을 뒷받침한 도레이가 아셈스의 롤모델이다. 장 대표는 “아셈스를 소재와 원부자재를 넘어 완제품까지 만들어 납품하는 기업으로 키우고 싶다”며 “인수합병 등 다양한 성장 전략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경]

한국어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나치가 갈라놓은 형제의 우애, 몰락과 회생 사이에 선 푸마

[브랜드로 남은 창업자들] '브랜드로 남은 창업자들' 은 이름 그 자체가 브랜드가 된 창업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콘텐츠입니다.

몰락의 기로에 선 푸마

독일을 대표하는 스포츠웨어 브랜드 푸마(PUMA)가 매각설에 휘말리며 전 세계 이목을 끌고 있다. 한때 나이키, 아디다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글로벌 스포츠 시장을 주름잡던 푸마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9월 3일 현재 푸마의 시가총액은 약 30억 유로, 한국 돈으로 4조 3800억 원 수준이다. 불과 2021년만 해도 26조 원에 달했던 몸값이 5분의 1 토막 난 셈이다. 루돌프 다슬러역사의 아이러니는 이 몰락의 그림자가 푸마의 태생에도 겹쳐 있다는 점이다. 한때는 같은 신발 공장에서 시작했던 형제가 갈라져, 한쪽은 아디

다스를 세우고 다른 한쪽은 푸마를 일으켜 세웠다. 그들의 불화가 두 개의 제국을 만들었고, 반세기 넘게 이어진 경쟁 구도가 오늘날 스포츠 산업의 역사를 바꾸었다. 형제의 비극에서 태어난 푸마는 과거의 영광을 지켜내며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또 하나의 브랜드로 남게 될까.

형제의 비극, 두 제국의 시작

푸마의 창업자 루돌프 다슬러는 1898년 3월 독일 바이에른주 헤르초게나우라흐에서 태어났다. 루돌프는 그 누구보다 외향적이고 사교적이었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했고 신뢰가는 달변가였다. 그리고 그에겐 동생이 한명 있었다. 그의 이름은 아돌프 다슬러. 형보다 2년 늦게 태어난 아돌프는 손재주가 좋았다. 두 형제의 아버지는 신발 공장에서 봉제 기술자로 일했고 어머니는 세탁



소를 운영했다. 동생 아돌프는 신발 공장에서 여러 도구와 재료를 가지고 놀면서 신발 제작 기술을 손에 익혔다. 그렇게 동생은 신발 기술자로 성장했고 형은 사업가로서의 수완을 발휘했다. 푸마 로고인 1924년 두 형제는 '다슬러 형제 신발 공장(Gebrüder Dassler Schuhfabrik)' 을 설립했다. 외향적인 성격의 루돌프는 세일즈와 마케팅에 집중했고 조용하고 꼼꼼한 신발 장인 아돌프



는 신발 개발에 몰두했다. 아돌프는 1925년 스파이크를 박은 러닝화와 가죽 징을 박은 축구화를 개발했고 특허권을 획득했다. 이는 좋지 않은 잔디상태와 진흙으로 쉽게 더러워졌던 기존 신발보다 훨씬 나은 성능을 보였다. 특히 올림픽에 나선 독일 선수들이 이들 형제가 만든 신발을 신고 세계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따자 회사도 주목받았다. 이후 운동선수들을 필두로 일반인들도 이들 형제의 신발을 구입하기 시작했고 1939년, 회사는 매년 20만 켤레 이상의 운동화를 팔며 급성장했다.

나치로 갈라진 형제, 각자의 길을 가다

그 사이 형제 사이엔 갈등의 씨앗이 커져가고 있었다.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한 뒤 두 형제는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독일 나치당에 가입했다. 하지만 적당히 사업에만 이용하려했던 동생과 달리 형 루돌프는 진성 나치당원이 됐다. 이후 1939년 제2차

의 이름에다 성을 붙여 '루다(Ruda)' 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지만 어감이 딱딱하고 매력이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푸마' 로 변경했다. 아메리카 대륙에 서식하는 대형 고양이과 동물인 푸마는 빠른 속도와 민첩함, 날렵함을 상징하며 축구화와 운동화에 특화됐던 당시 다슬러 브랜드의 이미지와 잘 어울렸다. 또한 받침이 없어 발음이 쉽고 인상적인 단어도 했다.

마케팅의 귀재, 브랜드를 키우다 마케팅과 영업이 능했던 루돌프는 곧바로 푸마 브랜드 확장에 나선다. 그는 푸마를 만든 직후 '아톰(Atom)' 이란 이름의 축구화를 출시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등장한 원자폭탄의 충격파를 활용한 것으로 패전국인 독일의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첨단 기술과 강력함을 상징하는 아톰을 축구화 이름에 적용하는 반전을 선보였다. 1950년 9월 서독 국가대표팀은 첫 국제경기에서 푸마의 아톰을 신으며 푸마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전세계에 알리기 시작했다. 이 경기는 푸마 브랜드를 공식적으로 처음 알린 경기이자 푸마 축구화가 바로 국가대표의 신발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한 사건이다.

푸마 아톰 축구화해당 경기는 푸마가 축구 전문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큰 공을 세웠고 이후 푸마는 축구화를 주력으로 스포츠 브랜드로 성장했다. 반면 아디다스는 독일 밖 글로벌 시장 공략에 공을 들였다. 1952년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을 공략한 아디다스는 수많은 금메달리스트들의 발에 아디다스 신발을

탁상용 카렌다 벽걸이 카렌다 가족 카렌다 동아리, 친목 카렌다



2026 달력



카렌다 제작을 시작으로 2026년(丙午年)을 미리 준비하세요!

카렌다 제작 전문업체 CREATIVE DESIGN COMPANY
SILK ROAD
도서출판/인쇄 광개토
제작 의뢰 : 0858 9060 0962, 0821 1122 8827
021 3002 9090 / 91
pt.kwanggaeto@gmail.com

- 광개토에 카렌다 제작을 의뢰하시면
1. 탁상용, 벽걸이용 카렌다를 고객의 기호에 맞게 디자인, 제작해 드립니다.
 2. 약 20만컷의 고품상도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촬영을 원할 경우 출장 촬영 가능합니다.
 4. 귀사의 현장과 생산제품, 설비등의 이미지로 차별화된 제작 가능합니다.
 5. 제작전 사전 디자인된 카렌다를 PDF로 먼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6. 가족카렌다, 동아리, 친목카렌다 제작시 최소수량 10권부터 가능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문제가 터져버렸다. 징집된 루돌프는 전쟁에 참전했고 동생 아돌프는 혼자 사업에 집중했다. 아돌프는 공장에서 군용 물자와 군화 생산을 담당했다. 미군 폭격을 피해가며 사업을 지켜가기 위해 애썼다. 아돌프(사진 왼쪽)와 루돌프 형제이지만 전쟁이 끝난 후 미군 포로수용소에 수감된 루돌프는 동생인 아돌프가 자신을 음해하고 제거하려 했다고 의심했다. 미군이 독일을 장악한 가운데 루돌프는 동생이 자신을 나치 협력자라 믿고했다는 것이다. 결국 종전 3년 뒤인 1948년 두 형제는 서로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다. 아돌프 다슬러는 자신의 별명인 '아디' 에다 다슬러의 '다스' 를 붙여 아디다스를 창립했다. 형인 루돌프 역시 자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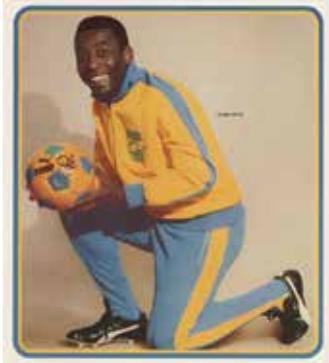
신기며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오만이 낳은 실패, 미끄러진 푸마 반면 독일 내수 시장에 집중된 푸마는 특히 축구 전문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며 국가대표 축구화 협찬 등의 프로모션에 공을 들였다. 특히 세련된 디자인까지 더해 축구를 좋아하는 독일인들에게는 푸마가 더 좋은 브랜드라는 인식까지 있었다. 하지만 고압적인 루돌프의 성격이 발목을 잡았다. 독일 축구대표팀 감독 제프 헤르베르거와 친밀하던 루돌프는 자신의 힘으로 감독을 교체할 수 있다는 식으로 행동했다. 푸마는 결국 국가대표팀 축구화에서 퇴출당했다. 그렇게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서 독일 국가대표팀은 아디다스 축구화를 신었다.



베른의 기적에서 빛난 아디다스 특히 기술력이 뛰어났던 아돌프는 선수들의 축구화를 하나하나 점검하며 잔디 상태에 따라 길이 조절이 가능한 스파이크 축구화를 개발했다. 결승전 당일, 경기장은 비가 많이 내려 진흙탕이었다. 이에 서독 선수들은 길이가 긴 스파이크로 교체해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경기를 주도해갔다. '베른의 기적'이라 불리는 해당 결승전에서 결국 서독은 당시 무적군단이라고 불렸던 헝가리를 3대 2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다. 이러한 우승에 아디다스의 기술력이 큰 공을 세운 것이다. 이는 아디다스의 기술력을 전세계에 알린 사건이었고 축구화에서도 이전 아디다스가 더 앞선다는 평가를 얻어내는데 기여했다. 이후 푸마는 아디다스를 추격하는 만년 2위 신세로 전락했다. 두 형제의 경쟁이 균형이 무너진 것이다.

푸마 킹과 펠레, 제2의 전성기를 가져오다

이후 시간이 지나 루돌프가 노



년에 접어들어 1970년대, 푸마에게 역전의 기회가 찾아온다. 1970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축구 황제 펠레를 회사 모델로 발탁한 것이다. 당시까지도 아디다스와 푸마는 암묵적 합의하에 슈퍼스타 선수들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했지만 수세에 몰린 푸마가 결국 이를 깨고 펠레와 계약을 맺은 것이다. 그리고 이는 주효했다. 푸마 킹을 신은 펠레월드컵 결승에 진출한 브라질 축구스타 펠레는 결승전 시작 직전 주심에게 양해를 구하고 신발끈을 고쳐 묶었다. 그리고 그의 발에는 푸마의 대표모델 '푸마 킹' 축구화

가 신겨 있었다. 푸마 킹은 1968년 월드컵을 겨냥해 푸마가 야심차게 개발한 신발이다. 결국 펠레가 된 브라질은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고 이는 푸마의 재도약으로 이어졌다. 이후 마라도나, 요한 크루이프, 에우제비우 등 당대의 축구스타들의 축구화로 유명세를 얻으며 푸마의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 펠레 덕분에 전세계서 푸마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푸마는 대중문화의 상징으로 도약했다. 바로 흑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브레이크 댄스 문화 속에서 많은 댄서들이 푸마의 스웨이드 신발을 신으며 유행을 선도한 것이다. 이처럼 스포츠 전문 브랜드에서 대중 문화의 아이콘으로 성장하며 푸마의 전성기가 열리는 듯 했다. 형제이난, 내리막길 걸은 푸마 하지만 1974년 창업자 루돌프가 사망한 뒤 그의 아들들이 형제의 난을 일으키며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옆집에 덩친 격으로 1980년대 들어 미국에서 등장한 나이키와 영국 리복의 성장세로 시장 경쟁력은 더욱 악화됐다. 루돌프 다슬러가 1974년 세상을 떠난 뒤, 푸마는 그의 아들 아르민과 게르하르트 형제에게 경영권이 넘어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창업 세대에서 불거진 '형제의 난' 이 다시 반복되었다.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은 회사를 내부적으로 약화시켰고, 전략적 방향성도 잃게 했다. 이 틈을 타 나이키, 리복이 신흥 강자로 떠올라 푸마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다. 스트리트 패션의 상징이 된 푸마



스웨이드마이클 조던을 앞세운 나이키의 '에어 조던' 시리즈 같은 혁신적인 마케팅 파워에 밀려 존재감을 크게 잃었다. 다행히도 1980~90년대에 힙합과 스트리트 문화가 부상하면서 푸마의 클래식 스키커즈 '스웨이드' 라인의 인기는 지속됐다는 점이 위안이었다. 뉴욕 브롱크스와 브루클린에서 시작된 비보잉과 그래피티 문화 속에서 푸마는 '거리의 신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스포츠 브랜드 본업에서의 경쟁력은 점차 악화되었다. 전환점 맞은 푸마, 위기극복 가능할까 새로운 전환점은 2007년 프랑스 명품그룹 케링(Kering, 당시 PPR)이 푸마를 인수하면서 마련됐다. 케링은 푸마를 '스포츠와 패션'을 잇는 브랜드로 포지셔닝했지만, 아디다스와 나이키가 스포츠 과학과 마케팅에서 앞서 나가는 동안 푸마는 중간 지대에서 애매한 위치에 놓였다. 스

포트웨어 정통성은 약해지고, 패션에서도 나이키의 콜라보레이션이나 아디다스의 '오리지널스' 시리즈에 비해 영향력이 부족했다. 2010년대 들어 푸마는 리한나, 카일리 제너 같은 셀럽과 협업하며 '패션 스키커즈' 브랜드로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리한나가 디자인한 '푸마 Fenty Creeper'는 전 세계적으로 완판 행렬을 만들며 푸마의 부활을 알리는 듯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 유행에 가까웠다. 근본적으로 스포츠 퍼포먼스 영역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트렌드가 바뀌자 다시금 성장세가 꺾였다. 현재 푸마는 나이키, 아디다스에 이어 3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규 투자와 기술 혁신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무엇보다 '형제의 비극'으로 출발해 반세기 동안 세계 스포츠 산업을 주름잡던 두 브랜드의 경쟁 구도가 이제는 푸마의 완패로 끝나는 모양새다. 푸마 모델 로제(푸마)오늘날 푸마는 여전히 유럽 축구 클럽과 대표팀 후원, 패션과 스트리트 감성을 잇는 협업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스포츠 산업이 '기술+콘텐츠+자본'의 전쟁터로 변한 지금, 푸마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다시 한번 '도약할 고양잇과 동물'이 될지, 아니면 역사 속 브랜드 박물관의 한 페이지로 남을지가 관건이다.

디젤 발전기

BGT POWER SOLUTIONS

판매
임대

점검관리

수리

유지, 보수

소형 5kVA ~ 220kVA

중형 250kVA ~ 700kVA

대형 800kVA ~ 4,000kVA

오리지널!! 가격 경쟁력 제고! 고객사 니즈에 신속대응!
고객 맞춤형 시행! A/S철저! 철저한 유지,보수관리 제공!

고객 문의

박성웅 Hp : 0812 9512 8990

PT. BINTANG GLOBAL TEKNIK

Mutiara Taman Palem Blok C19 No. 82, Cengkareng, Jakarta Barat 11730, Indonesia
 Tel: 021-2252-4373, 2252-4342 | Fax: 021-2252-4365 | Email : bakchan@daum.net

오하이오펀컴퍼니, 호카 오프라인 사업 인수로 흑자전환 시동 ‘전국 매장 확대 한다’



오하이오펀컴퍼니가 조이웍스의 스포츠 브랜드 ‘호카’ (HOKA) 리테일 오프라인 사업부를 인수하고, 사명을 조이웍스앤코로 변경한다.

오하이오펀컴퍼니는 250억원에 조이웍스의 호카 오프라인 부문을 인수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대금은 9월 30일 125억원을 1차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7년 9월 30일까지 분할 납부할 예정이다. 이번 인수 및 사명 변경 건은 9월 29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호카는 프랑스 러닝 전문가 니콜라 메르모드와 장-뤽 디아드가 만든 글로벌 브랜드로, 러닝을 보다 자유롭고 즐거운 경험을 추구한다. 국내에서는 ‘맥시멈 쿠셔닝’을 내세운 ‘본디(BONDI)’ 모델로 국내 러닝화 시장에 빠르게 안착했다. 최근에는 ‘로켓 X3’ 등 고성능 레이싱화와 트레일 슈즈를 선보이며 퍼포먼스 러닝 및 아웃도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조이웍스 호카 오프라인 사

업부는 2024년 매출액 306억원, 영업이익 47억원을 기록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올해 상반기에도 매출 188억원, 영업이익 28억원을 달성했다. 사업 평가를 맡은 신승희계법인은 호카 오프라인 부문의 매출액이 2028년 4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연간 40억원 수준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예상했다. 이 매출액은 조이웍스가 2021년 12월 신세계스타필드 코엑스점을 시작을 출점한 7개의 백화점 및 쇼핑몰의 호카 상품 매출을 더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매장당 월평균 매출액은 4억4700만원에 달한다.

증권업계는 이번 인수가 호카의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이웍스는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된 호카 오프라인 매장을 전국으로 확대해 매출을 끌어올릴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인수를 통해 오하이오펀컴퍼니는 자사가 보유한 리테일 유통망을 활용, 호카의 전국 단위 유통망을 본격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호카 매장이 지방으로 확장되면

회계법인의 예상보다 더 높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번 인수는 오하이오펀컴퍼니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오하이오펀컴퍼니의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손실은 약 20억 원이었지만, 호카 사업부 인수로 인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확실한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이웍스는 오하이오펀컴퍼니와의 협력을 통해 호카 오프라인 매장을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러닝 커뮤니티 허브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러너들의 연결과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진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호카는 제품 판매를 넘어 고객 경험을 최우선으로 하는 브랜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실제 러너들이 참여하는 호카 런클럽(HOKA Run Club)과 개인 최고 기록(PB) 달성을 돕는 클래스 운영 등을 통해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깊은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오하이오펀컴퍼니 관계자는 “이번 영업 양수를 통해 스포츠 유통시장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사업 영역 확대 및 이를 통한 매출·수익성 증대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브랜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식스 켈-1130 ‘캠퍼 팩’ 공개

가을 무드를 담은 어스톤 스니커.

아식스 켈-1130 ‘캠퍼 팩’이 공개됐다. 켈-1130은 아식스의 시그니처 모델로 잘 알려진 켈-카야노 14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대와 레트로 러너 무드가 느껴지는 디자인으로 대중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스니커다.

이번 ‘캠퍼 팩’은 기존 Y2K 무드를 이끌던 실버 오버레이와 뉴트럴 메시 소재를 과감히 벗고, 가을 분위기에 어울리는 어스톤과 스웨이드 소재로 재해석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모카 에디션’은 다크 브라운과 미드나잇 컬러 팔레트로 구성돼 계절감에 걸맞은 차별한 실루엣으로 선보여졌



으며, 또 다른 컬러인 ‘올리브/블랙 베이스’ 스니커의 토와 레이스 부근에는 오프화이트 컬러가 포인트로 더해져 강렬한 컬러 블로킹으로 완성됐다.

아식스 켈-1130 ‘캠퍼 팩’은 현재 유럽 일부 리테일러숍에서 선발매됐으며, 추후 글로벌 시장에도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코비 브라이언트 x 나이키 에어 포스 1 로우 ‘코트 퍼플’ 공식 이미지 공개

전설적인 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를 기리는 나이키의 에어 포스 1 로우 ‘코트 퍼플’의 공식 이미지가 공개됐다. 먼저 출시된 ‘소프트 옐로’와는 달리 스니커의 어퍼 전반에는 강렬한 뱀피 패턴이 뒤덮인 것이 특징이다.

스니커의 뱀피 패턴은 코비의 별명인 ‘블랙 맘바’를 상징하며, 텅텅과 측면 힐에는 코비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Sheath’ 로고가 새겨져 있으며,

좌우 힐탑에는 그의 등번호인 ‘8’과 ‘24’ 숫자가 자리한다. 또한 실버 색상의 듀브레에는 ‘Mamba’와 ‘Forever’ 문구가 각인된 것을 눈여겨볼 만하다.

해당 스니커의 정확한 출시일은 미정이며, 오는 가을 시즌 중 출시될 전망이다.

HYPEBEAST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KYUNGWON
COMPRESSOR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직업점: (주)동부경원세기
TEL: +82-2-465-6308 / 3884 박용환 대표: +82-10-5345-2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62-21-8926-1370 이갑진 매니저: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KYUNGWON COMPRESSOR
GENUINE PARTS

주아세안 대사, 인니 금융감독청(OJK) 청장 면담... 우리 금융기업들의 애로 해소 노력 합의

2025 한-아세안 금융협력포럼 공동 개최 및 우리 금융기업들의 애로 해소 노력 합의



▲주아세안 이장근 대사(왼쪽)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마헨드라 시레가르 청장과 면담하고 있다(사진=주아세안 대표부)

주아세안 이장근 대사는 지난 19일(금)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마헨드라 시레가르 청장을 면담하고, 주아세안 대표부가 금년 12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2025 한-아세안 금융협력포럼'을 금융감독청(OJK)과 공동 주최하기로 하는 한편 금융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아세안간의 협력 증진을 위해 양측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장근 대사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금융회사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청(OJK)의 협조와 배려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마헨드라 시레가르 청장은 아세안 대표부와 협력 하에 우리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청(OJK)간 애로사항 청취 및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원활하고 다양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폭넓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아세안 대표부는 금융 분야의 핵심 인니 정부 부처인 금융감독청(OJK)과의 협력 강화

를 통해 한-인니 간 금융 분야 협력 증진뿐만 아니라 아세안과 우리나라와의 금융협력 발전을 도모하고,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금융회사들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주아세안 대표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5 한-아세안 금융협력포럼'은 <금융에서의 디지털 혁신의 미래>를 주제로 오는 12월 2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아세안 사무국, 국제기구(AMRO, ADB 등)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디지털 금융 혁신·Fintech·지속가능한 금융·포용적 금융 접근성 확대 등을 통해 협력 전략을 제시하고, 한국과 아세안간의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논의한다.

[주아세안대표부/자카르타경제신문]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오랜만에 남북의 언어 이질화 비교해 봅니다.



- 건달 => 날총각
- 도시락 => 곱밥
- 공보리밥 => 강보리밥
- 건널목 => 건널길
- 가발 => 덧머리
- 계단논 => 다락논
- 그룹 (Group) => 그루빠 (러시아어)
- 가름하다 => 갈람하다
- 캠페인, 운동 => 캄빠니아 (러시아어)
- 각선미 => 다리매
- 팬찮다 => 일없다
- 가게 => 가가(假家)
- 가름하다 => 갈람하다
- 관광 안내원 => (관광) 강사
- 곱습곱습하다 => 갑술갑술하다
- 피병 => 건병

- 팬히 공연히 =>건으로
- 겨우살이 => 겨울나이
- 공생원 => 골서방
- 개수대, 싱크대 => 가시대
- 출입문 => 나들문
- 노엽다 => 나무럽다
- 냉차 => 찬단물
- 눈총을 주다 => 눈땀총을 놓다
- 나들이옷, 외출복 => 갈음옷
- 나 돌아다니다 => 게바라다니다
- 도넛 => 가락지뽕

단국대학교 한문교육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졸업 문학박사
중부대 명예교수
한국대학교수협의회 대표
한국어문학회 회장
저서 : 한국어문화문법의 50여권

아디다스골프, 90년대 감성 재해석한 'EQT 골프' 출시

아디다스골프는스포츠웨어 'EQUIPMENT 골프 (이하 EQT)'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컬렉션은애슬레틱한 실루엣의 폴로 셔츠, 리버서블 베스트, 쿼터 zip, 쇼츠, 5패널 햇 등으로 구성했다.

풋웨어는 1993년 처음 출시한EQT 골프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EQT 93 GOLF'를 선보이며, 일본의 슈즈 디자인 장인이자 마스터 슈메이커인 오모리 토시아키(Omori Toshiaki)와의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

접지력이 뛰어난 TPU 스파이크리스 아웃솔, 안정성을 위한 토션 바, 그리고 편안함



을 더해주는 쿠셔닝과 미드솔 전체를 감싸고 있는 부스트가 특징이다. 어퍼는 클래식한 실루엣과 퍼포먼스를 결합한 새로운 라스트가 적용되었으며, 방수 가죽으로 내구성이 탁월하다.

퍼포먼스를 위한 EQT 골프는 이날부터 공식 온라인 스토어 및 아디다스골프 청담 직영점 그리고 일부 공식 대리점을 통해 만날수 있다.

[nate 뉴스]

미우미우 x 뉴발란스 530 새로운 컬러 출시

메탈릭한 스니커까지.

미우미우와 협업한 뉴발란스 530 모델의 새로운 컬러가 공개됐다. 이번 드롭은 지난 2024년 봄, 여름 컬렉션 런웨이에서 처음 선보였던 530 모델의 연장선으로, 해당 스니커는 뉴발란스의 클래식 러너를 미우미우의 무드로 슬림하게 재해석된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번 스니커는 블랙 페이턴트, 메탈릭 실버, 그레이 총 세 가지 컬러로 구성됐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메탈릭 실버다. 스니커의 어퍼는 반짝이는 메탈릭 실버 소재로 감싸졌으며, 곳곳에는 골드 포인트가 더해져 세련된 실루엣으로 완성됐다.



또한 이번 시즌은 처음으로 메시 소재가 추가돼 러너 헤리티지의 가능성을 강조했다며, 미드솔에는 기존 530의 앰플브 구조보다 낮은 프로파일 적용돼 정제된 디자인으로 선보여졌다.

미우미우 x 뉴발란스 530은 현재 미우미우 공식 웹사이트에서 만나볼 수 있다.

HYPEBEAST



YUSUNG E&C

종합건설 & 엔지니어링





유성열 대표 : 081280370303
이광선 이사 : 081210077732

건설 기계 전기 배관
PT. YUSUNG JAYA ABADI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Raya CurugPos Bitung15810 / yusungjaya1@hotmail.com / Tel. (021) 598 0222 / 598 2666

나이키 공식 계정에 새로운 로고가 등장했습니다. 'Logo collection coming soon. Signature product dropping 2026.' 라는 문구와 함께 공개된 이번 로고는, 다가올 로고 컬렉션과 2026년으로 예정된 시그니처 제품 론칭을 예고

여자 농구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나이키는 이번 발표를 통해 케이틀린 클라크를 새로운 시그니처 선수로 공식 소개했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로고 역시 그의 이니셜 'C' 를 모티프로 디자인된 것. 서로 얽힌 두 개의 C의 모습은 케이틀린 클라크가 전 세계 팬들과 끈끈한 유대감을 맺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 숨은 작은 C는 클라크의 정밀함, 파워, 차세대 농구 선수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하며 케이틀린의 경기력

완전히 새로운 나이키 로고가 공개됐다

케이틀린 클라크와 손잡은 나이키 시그니처 로고 컬렉션 발표.

했습니다. 게시물에 함께 태그된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NCAA(미국 대학 체육 협회) 최고의 스타로 꼽히는 농구 선수, 케이틀린 클라크(Caitlin Clark)입니다.

그는 아이오와 대학교 소속으로, 대학 시절부터 놀라운 득점력과 경기 운영 능력을 선보이며 '케이틀린 클라크 효과(Caitlin Clark effect)'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특히 장거리 3점 슈트와 경기 장악력으로 수많은 기록을 갈아치우며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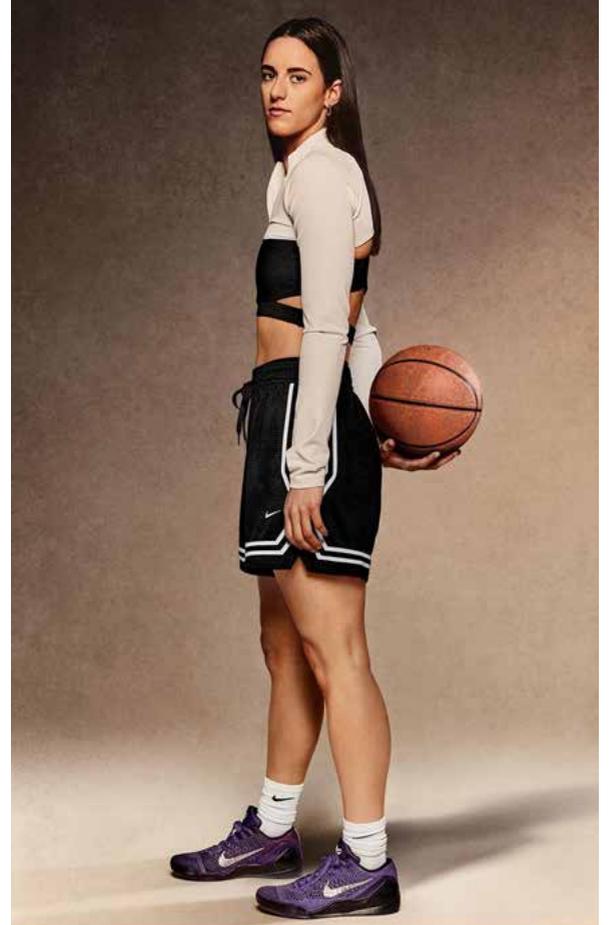


▲@nike

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상징합니다.

이 로고는 오는 9월 1일 북미에서 출시되는 네이비와 옐로 컬러의 로고 티셔츠를 시작으로, 10월 1일 전체 어패럴 컬렉션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클라크의 첫 번째 시그니처 슈즈와 풀 어패럴 컬렉션은 2026년 출시를 앞두고 있죠. 나이키가 그리는 차세대 스포츠 아이콘의 컬렉션은 어떤 모습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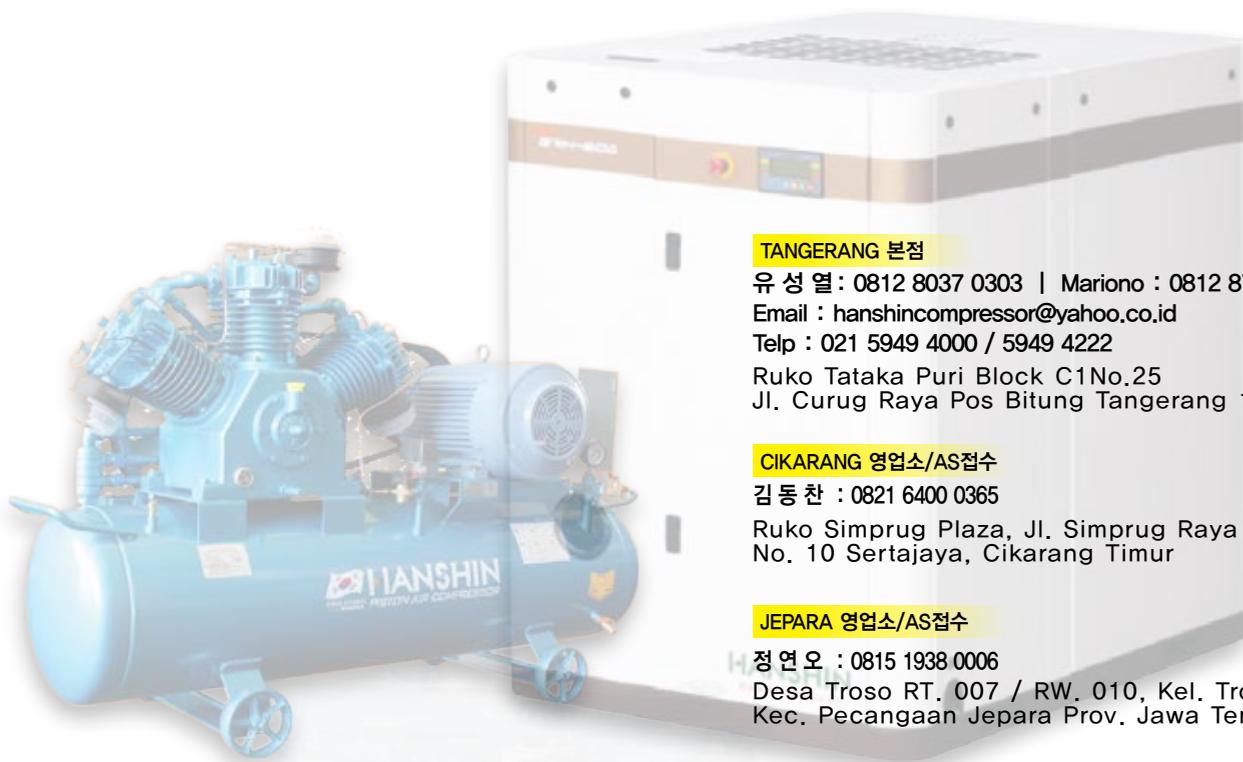
ELLE



▲@CaitlinClark22

HANSHIN

에어 콤프레셔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o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CIKARANG 영업소/AS접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JEPARA 영업소/AS접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